



(30) 오병문 前 교육부장관 <상>

■ 전라도 역사이야기

-신안 거제도

“5·18때 학생들에게 무기회수 설득”

“5·18 광주항쟁이 한창일 때 저는 수습위원으로서 전남도청에서 학생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자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더 이상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간곡히 무기 회수 등을 설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80년 5월 오병문(81) 전 교육부장관은 전남도청의 역사적 현장에 있었다. 그는 광주사범학교 동기인 장형태 당시 전남지사의 부탁을 받고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남도청으로 들어갔다. 장 전 지사는 당시 경찰청공대에서 상황과약을 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참담했다. 따라서 오 전 장관은 장 전 지사를 도청으로 불렀다. 그리고 직접 안내하며 당시 시민들의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게 했다.

“장 전 지사가 왔을 때 당시 전남 경찰청 앞에 시체 30여 구, 상부관 내에 시체 50여구가 있었습니다. 태극기에 둘러싸인 관을 보고 장 전 지사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오 전 장관은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도청 내에 있던 총 수천 정과 다이너마이트 수천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며 학생들과 시민군을 달랬다.

“내란음모·소요 혐의 뒤집어 쓰고

전두환 무리에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러던 26일 오 전 장관은 전남도청을 떠났다. “군인들이 밀고 들어와 전남도청을 폭파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아라 여사를 모시고 도청을 나왔지요. 그때 안 나왔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오 전 장관은 전남도청을 나와 집에 있었으나 상당 신도들의 충고를 듣고 월산동의 한 신도 집에 숨어지냈다.

“한 일주일쯤 숨어 지냈는데 나에 대한 현상금이 100만원이나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됐느냐’는 생각이 들어 광주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장이 자기 관용차를 보냈어요. 그래서 왔더니 바로 쌍춘동 보안대 지하실로 끌고 가더군요. 전두환 무리는 정말 무지막한 놈들이었어요. 정말 많이 맞았지요”

당시 계엄군은 오 전 장관을 배후조종자로 보고 주동 학생들의 이름을 대라고 다그쳤으나 그는 끝끝내 학생들의 이름을 대지않고 소요혐의와 내란음모혐의를 그대로 뒤집어썼다. 그래서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6년을 받아 6개월만의 육교를 마치고 그해 10월30일 풀려났다. 물론 교수 자리는 없어졌다. 오 전 장관의 5·18 체협담이다.

오 전 장관은 1928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당시 조그만 사업을 하던 부친은 그가 6살 때 광주로 이사를 했다. 순전히 교육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 전 장관은 수창국민학교(18회)를 나와 광주사범학교에 들어갔다. 당시 광주사범은 5년제였으나 해방을 맞아 그는 4학년 때 서울대 예과(2년)



약력

- ▲1928년 전북 남원 출생
- ▲광주사범학교,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 ▲목포여자고등학교·광주사범학교 교사
- ▲전남대 사범대학장, 총장
- ▲교육부 장관
- ▲동신대 교육학과 석좌교수, 명예교수

를 졸업하고 다시 서울대 본과 사범대 교육학과에 다녔다. 그런데 또다시 4학년 때 6·26가 터졌다.

“전쟁 중에 교사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졸업 못했지만 1951년 목포여고로 발령을 받았지요. 그래서 1953년까지 목포여고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는 사이 부산으로 옮긴 서울대를 1년 동안 다니며 졸업장을 받았지요”

1953년에 그는 광주사범학교로 자리를 옮기고 1955년에 전남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4년 뒤 미국으로 건너가 1961년 뉴욕대학에서 교육사회학 석사를 받았다. 하지만 박사까지 마치려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전남대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전남대로 복귀했다. 다시 교수 생활. 그는 1972년 동국대에서 철학박사 학



가톨릭 기사복을 입은 오병문(왼쪽으로부터 두번째) 전 교육부장관이 지난 1984년 한국을 방문한 교황 바오로 2세를 맞아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위를 받고 전남대 교양과정부 부장교수(학장 서열)를 맡았다. 또 1973년에는 사범대학장에 올랐다.

오 전 장관은 목실한 가톨릭 신자다. “목포여고 근무할 때부터 절, 교회, 성당을 두루 둘러봤어요. 그래서 1956년부터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1973년 오 전 장관은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한국 천주교 사상 처음 평신도로선 최고의 영예인 그레고리오기사 작위에 올랐다. 이상래 전 순천대 학장과 동시에 받은 영예였다. 이전에는 장면 박사와 현석호 전 국방장관이 바로 밑 서열의 기사 작위를 받았으나 그레고리오기사 작위는 평신도로서 국내 처음이었다.

“학식, 덕망, 신앙심을 두루 보고 대주교가 평가, 상신하면 교황이 최종 결정을 해서 기사 작위를 내리지요. 기사 작위를 받으면 교황, 추기경, 대주교 등이 함께하는 천주교 주요 행사 때 기사 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남대 총장시절 엄격한 학사관리 실행

운동권 관계없이 성적불량 150명 제적

교수로서 잘나가던 그가 5·18로 해직이 돼 후 4년만인 1984년 초 다른 해직교수 3명과 함께 목포대 교수로 복직된다. 그리고 1학기가 지나자 바로 전남대로 복귀했다.

그리고 4년 후 오 전 장관은 전국의 대학이 민주화의 진통을 겪고 있던 1988년 첫 교수직선 총장에 오른다.

“당시 저 혼자 임후보했어요. 그리고 900여명의 교수 중 87%의 찬성을 얻어 총장이 됐지요”

오 전 장관은 총장 재임 4년 동안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가리지 않고 성적이 불량한 150여명의 학생을 제적시켜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는 소신있는 원칙론자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4년 후인 1992년 8월 그는 정년 퇴직하고 제2대 전남발전연구원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거북이 헤엄쳐 가는 형제 수산물 풍성한 국가 어항

197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거제도(목포에서 뱃길로 217km(직선거리 145km)다. 5월부터 매일 운항한 쾌속여객선은 흑산·홍도를 경유하여 4시간 30분 만에 대리항에 다다랐다.

한반도 최서남방 섬인 거제도(전남 서해바다 중 가장 높은 독실산(積實山·639m)이 있어 물이 풍부하다. 아늑하고 수세가 좋아 살만한 땅으로 佳佳(가가)·佳佳(가가)·佳佳(가가)·佳佳(가가)·佳佳(가가)·佳佳(가가)이다.

안개를 머금고 우뚝 서 물길을 안내 하듯 앉아있는 섬으로 거북이가 북서쪽을 향해 헤엄쳐가고 있는 꼴이다. 봉어를 닮았다고도 하는데, 등대 쪽이 머리고, 대리가 꼬리다. 면적은 918ha이고, 해안선 길이는 22km이다.

중생대 백악기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안산·유문암이 바탕이다. 신석기 시대 토기·돌도끼와 패총이 발견됐다. 고려 때 협계산도(夾界山島)로 영산현 소속이었고, 조선초 나주목 직속이었다. 1845년 우수영 흑산진 소속 별장(別將)이 임명됐고, 1896년 지도군(智島郡) 자은면 소속 거제도였다. 1914년 무안군 흑산면 소속산도(小黑山島), 1969년 신안군의 섬이 됐다.



회룡산 기슭에서 바라 본 대리항.

남쪽 큰물(大里), 북서쪽 목에(洞巖里), 북동쪽 대풍(待風)구미에 걸쳐 291호 527명이 살고 있다. 1680년대부터 장택 고·경주 최·장흥 임·나주 임씨가 광주, 해남, 나주로부터 들어왔다.

수산물은 완전 자연산으로 동쪽 안면개(350ha), 서쪽 발면개(250ha), 향리(450ha), 대풍(210ha)에 걸쳐 불발라, 우럭, 돛돔, 농어, 방어, 돌돔과 들미역, 전복과 소라가 나온다. 한 때 멸치도 특산이었고, 멸치잡이노래는 1986년 전국대회에서 문공부장관상을 받고, 1988년 지방무형문화재 22호로 지정됐다.

후박나무(430ha)를 비롯하여 황칠나무(102ha), 천리향 껍질나무(대엽종란), 음양과, 하수오, 인동초 따위 30여종의 약초가 자라고 있다. 국홀도에는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가 꾸민 모락(밀사초) 알터집이 있고, 예전에 물표범도 떼지어 살았다.

출장소 앞에는 4.19때 순국한 대리출신 서라벌예술고 김부련(金富蓮)비가 있다. 굴섬 암벽에는 한민학원 제자들이 새긴 민당 김석문 선생 글도 있다.

자갈해안이었던 대리항은 1979년부터 시작된 방파제사업으로 크게 변했다. 두 차례 태풍을 겪은 뒤, 울해 길이 480m 높이 9m 폭 30m 규모의 공사가 마무리 됐고, 주변 정리작업이 한창이다.

회룡산(282m) 끝자락의 녹색은 빨처럼 솟아 장군섬(鷹島) 구멍과 마주한다. 굴섬너머 바닷가에서 조약돌이 파도에 튕돌면서 내는 소리가 있다.

/김경수(사)해문문화진흥원장

국제약품 기원라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캄보디아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국제약품 KUKJE http://www.kukjepharm.co.kr